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

주민강사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듣고 전문자격을 취득한 수료자에게 강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후관리

를 통해 주민강사들의 자립을 돋운다. 작년에는 관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에 주민강사 41명이 파견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에는 주민강사스터디 모임을 독려하고 학습나눔 사업 확

대를 위해 주민강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주민강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주 6시간씩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 필수 과목인 스피치과정에서는 강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스토리텔링 기법, 교안 작성법 등을 배운다. 마지막 주에는 강의 시연도 할 예정이다. ‘연습을 실전같이, 실전을 연습같이’ 하면 큰 실수 없이 첫 강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 과목에서는 청소년 분야와 시니어 분야로 나뉜다. 시니어 분야 평생학습강사 양성과정 수강 중인 빈정기(72세·신평동) 씨는 금요일 오전에는 주민강사 스피치 과정을 듣고, 오후에는 시니어 분야 강사 양성과정을 듣는다. 빵 한 조각으로 점심을 때워가며 금요일 하루 온종일 강사가 되기 위해 열심이다. 평소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인문학 지도자 1급을 학습관에서 취득했다고 한다. 인문학 전문 시니어 주민강사가 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했다.

청소년 분야 평생학습강사 양성과정 수강 중인 이해진(41세·장림동) 씨는 학습관에서 정리 수납 2급 자격증을 땠다고 한다. 그 후 1급까지 취득 후 봉사활동 중이다. 봉사 중에 문제 청소년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소년 주민강사 분야에 지원했다고 한다. 정리 수납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이해진 씨는 세 아이의 엄마이면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하구 주민들은 누구나 주민강사가 될 수 있다. 사하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많은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언제든지 이용하기 바란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평생학습! 그것이 알고싶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열려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은 각종 행사, 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대단지 아파트로 평생학습을 홍보하기 위해 구민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직접 찾아 나선다. 2015년 시작으로 2016년에는 3회 운영되었다. 지난해에는 한마음 걷기대회와 다대포 해변 알뜰장터를 찾아가 2,000여명이 홍보체험관을 참여하였다.

올해 첫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은 4월 21일 을숙도 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에서 진행된다. 사하구장애인 권익증진 문화축제에 맞춰 진행되는 홍보체험관은 평소 참여가 힘들었던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간단한 평생학습 퀴즈를 풀면 체험이 가능한 쿠폰을 발급하고, 팬시우드 열쇠고리 만들기, 전통 떡 만들기 체험 중 선택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체험홍보관은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학습과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는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월 27일에 열리는 ‘다대포 알뜰살뜰 봄 장터 개장’ 행사에도 함께 한다. 이 날은 풍물동아리의 축하공연, 만들기 체험, 앱 설치 이벤트 등 다양한 평생학습 행사가 열린다. 가정의 달 5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참여로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체험도 하고 행복한 추억도 쌓는 경험을 만끽하기 바란다.

강경화 평생학습 구민기자
wy0823@naver.com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배우고 나누는

동네방네 학습관 모집

요즘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공유경제는 내가 소유한 물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서비스 등을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새봄을 맞아 사하구는 평생학습형 공유경제사업으로 ‘동네방네 학습관’을 운영한다.

동네방네 학습관은 지역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공유하면서 빈공간의 개방을 통해 학습공간이 필요한 구민과 시설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공방, 카페, 관리사무소 회의실, 사무실 등 어느 장소든지 가능하다. 공간 기부자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가까운 장소에서 쉽게 학습이나 모임을 할 수 있다.

사하구는 동네방네 학습관 지정서와 현판을 공간기부자에게 수여한다. 1년간 실적에 따라 다음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

교육이 가능한 작은 공간이 있다면 동네방네 학습관으로 신청하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면 시설에 대한 홍보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을 동네방네 학습관으로 신청 시 장소승낙서를 사하구청 평생학습과로 방문제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협약 확인 후 최종 선정한다. 장소가 필요한 학습자들의 공간 사용신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LLL.saha.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사하구 평생학습과 T. 051-220-4805)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이제 모바일로 평생학습 이용하세요

평생학습관 앱 출시



사하구는 ‘사하구 평생학습관’ 모바일 앱 서비스를 4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앱 개발은 작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앱을 설치하면 사하구에서 시행되는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평생학습 정보를 알리면 직접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다. 사하구청,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평생학습관 접속을 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번 모바일 앱 서비스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준다. 앱과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어 구민들은 모바일로 손쉽게 수강신청을 하고 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면 된다.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도 실시간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사하구는 모바일 앱 보급으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평생학습 홍보도 보다 확대되었다.

황혜영 평생학습 구민기자
hyo2456@naver.com

사하구 평생학습관 인문학 바람 분다

‘일석이조’ 상반기 인문학 강좌 3개 개설

사하구평생학습관에 인문학 바람이 분다. 지식을 습득하고 교양을 쌓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인문학과 미술, 인문학과 영화, 인문학과 성인(聖人)들의 삶과 관련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인문학 시간이다. 고우니인문학, 인문학으로 접근하는 미술, 영화와 함께 하는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상반기에만 인문학 강좌가 무려 3개나 개설되었다.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는 목요일 오후에 ‘인문학으로 접근하는 미술-E.H. 곰브리치를 중심으로’ 강좌는 같은 날 저녁에 진행된다. 3월에 개강하는 인문학 강좌에 직장인들은 일을 마치고 저녁 강좌를 듣기 위해 한달 음에 온다고 한다.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노자의 사상과 주역을 인용하여 동양철학으로 인문학을 풀어간다. 동서양 미술사로

인문학을 강의한다. 지폐와 초상화 같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품으로 친근하게 풀어준다. 고전문학으로 인문학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인문학에 접근하고 있다. 매번 다양한 주제와 여러 강사들의 강의로 진행되며 독특하고 풍성한 강좌이다. 수강생들에게는 여러 시각으로 인문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저녁 강좌로 열린 ‘영화와 함께하는 인문학’은 대기자가 많았던 만큼 인기강좌다.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데 수강생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영화를 주제로 열리는 강좌여서 다양한 영화를 감상하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다. 수강생들은 원작인 책과 영화를 비교해보고 작품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 이 강좌를 계기로 원작인 책을 한 번 더 읽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한다. 박재현 강사는 영화 ‘동주’, ‘레미 제라블’, ‘오만과 편견’, ‘냉정과 열정사이’ 등 여러 유명한 작품들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영화를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인문학으로 접근하는 미술-E.H. 곰브리치를 중심으로’는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까지 ‘서양미술사’를 교재로 선정하여 강좌를 진행한다. E.H. 곰브리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술사학자이며 1950년에 저술한 ‘서양미술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주제지만 쉬운 해설과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배선주 강사의 강의를 듣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없애고 시대별 미(美)와 추(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양미술의 역사와 함께 작품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은 덤이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온 미술의 여러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강좌이다. 특히 2018년 3월 사하구에 개관을 앞둔 부산현대미술관의 작품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 상하반기 2차례나 열렸던 강좌인데도 듣고 싶은 수강생이 여전히 많아 한 번이라도 이 강좌를 들었던 수강생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인문학 강좌가 인기이다. 인문학 강좌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 마음을 건강하게 해 줄 것이다. 사하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에 호응하는 인문학강좌를 많이 열어 주기를 기대한다.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예술은 우리 삶 가까이 있어요

홍티로 떠나는 예술 나들이

홍티아트센터는 다대포 무지개 공단 내 옛 홍티 포구에 있는 설치 미술 중심의 창작 공간이다. 여러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해오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3월에는 조금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시각예술가 정윤선 씨와 사하구 연극 동아리 시민극단의 ‘별거 있는 하루’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그것이다. 단원들은 희망, 생활의 고달픔, 그리움과 같은 소소한 일상을 퍼포먼스로 표현하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한다.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정윤선 작가는 “모든 일상 속 행위는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평범한 시민

에서 배우로 거듭나고 있는 단원의创造性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일상을 예술화시켰다고 한다.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술은 늘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강조한다. 이번 퍼포먼스는 우리에게 삶과 예술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앞으로 시민극단의 활약과 홍티아트센터의 다양한 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중요한 일에 하루10분 투자하자!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이겼다. 야호!”

이건 쪽이 형님 진 쪽은 아우님. 손동작을 하기 위하여 형님 아우를 정하는 가위 바위 보를 하였다. 형과 아우가 짹이 되어 서로 마주 보고 손바닥 손등치기, 가로 세로 박수 치기에 열중이다. 이 곳 저 곳에서 웃음꽃이 피었다. 사하구는 신평·장림산업단지 등 부산대표 산업단지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2013년부터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8개 기업에서 43회의 강의를 신청을 했다.

지난 3월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주)네오메드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관리법’ 강좌가 진행되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시작된 강의는 익숙한 가위 바위 보로 문을 열었다. 여성 35명, 남성 5명이 참여하였다.

이하정 강사는 하루 일과를 중요한 것 중심으로 나누라고 강조했다. 중요하고 긴급한 것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것,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것,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눠 보게 했다.

하루 24시간 중 10분 만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해 보자고 권유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하루 일과도 적어 보도록 했다. 근로자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낸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한 달에 한 번쯤 교육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덧붙였다. 사내 교육 담당자인 박보영 팀장은 “사하구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덕분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하반기에 있을 기업체 인문학 특강도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과 220-4805

하숙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ssaksil@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한글 행복전도사

까치마을 몽당연필의 장애옥 강사를 만나다

까치마을에 행복을 나르는 사람이 있다. 까치마을 한글교실 몽당연필의 장애옥(54세) 문해교육 강사다. 배움의 때를 놓치고 뒤늦게 한글교실에 입문한 어르신들에게 그녀는 자상하고 친절한 교사이며 친구다. 늘 편안한 미소로 나이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인기가 많다. 그로 인해 지난해 11월에는 사하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장애옥 씨는 2011년에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문해교실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다. 초·중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했던 장애옥 씨는 우리나라에 비문해 인구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노인 대상 한글지도에 체계화된 교수법이 없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도 갖게 되었다. 장애옥 씨가 어르신들에게 지금까지 한글과 검정고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책읽기를 좋아해서 문학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10여 년 동안 출판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자연히 한글에 관심이 높았다. 또한 '열린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한글문해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문해교육사 양성



교육을 비롯해 여러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장 경험을 살려 장애옥 씨는 한글교수법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몇 년에 걸쳐 한글의 제자원리를 익힐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 교재는 자음과 모음을 재미있고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장애옥 씨의 아이디어로 만든 본인만의 교재다. 어르신들은 이 교재를 이용한 수업을 가장 좋아한다. 그녀는 배움의 한을 풀고 싶어 찾아왔지만 나이가 많아 돌아서



면 잊어버리는 어르신들에게 백 번이라도 짜증내지 않고 지도한다.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얼마 전에 학습자 한 분이 상을 당했다. 몇 년 동안 한글교실에서 친절히 수업을 받아 초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함께 나눴던 할머니였다. "우리 어머니의 노후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공부하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늘 친절하게 반복하여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입에 달고 계셨어요." 유족들은 문상을 간 장애옥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문자 해독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도 도전해 무학력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돋고 싶어요"

장애옥 씨의 지치지 않는 한글사랑과 문해교육에 대한 열정은 불통의 어르신들을 사회와 이어준다. 그녀가 있어 어르신들도 행복 속에 살아가신다.

최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공원이 있는 힐링공간 낫개작은도서관 다대2동 구립작은도서관을 다녀오다.



하얀 목련과 분홍 벚꽃이 활짝 핀 아파트 사이를 내려가면 어린왕자와 피노키오의 전시물이 반겨준다. 길을 따라 가면 꽃밭과 함께 작은 분수에 개구쟁이 조형물도 보인다.

낫개 작은도서관은 다대현대아파트와 삼환아파트 사이에 있다. 주민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외부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낫개'는 배가 정박하는 '나포'의 우리말로 다대만의 동쪽에 위치한 지명을 따서 붙여졌다. 이 공간은 평소 주민들의 통행이 없어 야간에 범죄의 우

려가 높았다. 작년 12월 사하구는 이 곳에 작은도서관과 함께 '낫개가로공원'을 조성해 꽃과 나무를 심고 산책길을 만들고 운동기구를 설치하였다.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와 분위기 좋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도서관 1층에는 어린이 도서관, 아기방, 이야기방이 있다. 계단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계단책방을 올라가면 2층에는 프로그램실, 다락책방, 발코니가 있다. 알록달록한 다락책방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공간이다. 3층 옥상에서 독서를 하다가 바람을 쐬며 머리를 식힐 수 있다.

낫개 작은도서관은 문을 연지 넉달남짓 되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나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장년, 노년층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장터가 열리는 3일, 8일에는 어르신들이 손주들의 손을 잡고 찾아온다고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방문하는데 도서관 기본예절 교육 후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한다은 사서는 작은 도서관으로서는 제법 큰 규모라 방문하는 분들이 둘러보고 놀란다고 하며, "전화로

'낫개'라고 하면 낫, 개 글자를 일일이 설명해야 합니다. 1호선 연장선이 개통되어 낫개역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더욱 친숙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대동에 거주하지 않아도 도시철도 1호선(다대선)을 타고 낫개역에 하차하면 이용이 편리하다. 따뜻한 봄 공원과 도서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낫개 작은도서관에 사하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기를 기대한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제1회 부산인재평생학습주간 행사

부산의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와 성과를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에 관심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간** 2017.5.19.(금) ~ 5.20.(토)
- **장소**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 **내용** 체험부스, 공연, 전시, 청춘골든벨 등
- **주최** 부산시, 구·군



제 72회 사하아카데미가 3월 15일(수) 오후3시 구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방송인 이광기 초청강연 '띠뜻한 나눔을 통한 행복한 삶' 이란 주제로 열렸다.



우리구 평생학습 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2017년 평생학습협의회 정기회의가 3월 17일(금) 오전11시 신관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동래구 소재) 개원식이 3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부산시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평생학습 이모저모



하모니카로 웃고 울며 춤춘다

'을숙도바람소리'를 찾아서

오라는 곳은 어디든지 같다. 하모니카 동아리 '을숙도바람소리'는 사하구의 중요한 행사마다 연주를 한다. 행사에 맞게 슬프고 아름답고 신나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다. 많은 사람들이 사하구에서 가장 열심히 꾸준히 활동하는 동아리 중 하나로 을숙도바람소리를 꼽는다.

회원들은 2012년 사하 문화원에서 시작된 하모니카 강좌를 들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다. 본격적으로 동아리가 결성된 것은 겨우 1년여 정도이다. 그러나 을숙도바람소리는 지난 한 해 동안 15회 공연을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태화(69세·다대동) 회장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회원들 자랑이다. "꾸준히 연습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실력과 저력을 겸비한 동아리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낙동강 문화관에서 연습을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18명 정도다. 대부분 회원은 혼자에서 은퇴한 연령층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 기타와 같은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뒤틱게 대학에 입학한 회원도 있다. 열심히 배우고 연습한 회원 중에는 다른 지역에 하모니카 강사로 출강하는 회원도 있다.

을숙도바람소리 회원들은 서로 모니터링해 주면서 연습을 한다. 전문 강사를 따

로 두지 않고 정용식(67세·신평동) 회원이 은퇴 전에 했던 학생들 음악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강사역할을 한다. 연주하는 장르도 가요, 트로트, 포크송, 러시아음악, 그리스음악 등 다양하다. 어느 무대에서나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10여 곡 이상 된다.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약보철이 백과사전 두께에 이르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기억에 남는 공연으로 을숙도 문화회관 무대에 처음 섰던 날을 떠올린다. 가장 미흡한 연주였지만 회원들은 첫무대의 설렘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지역문화행사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오프닝 공연은 참여한 사람들과 한마음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는 무대가 되어 감동적이다.

탄탄하게 연습된 을숙도바람소리의 무대는 사하구 곳곳에서 주민들과 웃고 울며 춤추며 이어질 것이다. 언제든 하모니카 연주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다. 배우려는 사람들도 환영한다. 김태화 회장(010-7146-2199)에게 연락하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사하구민이 전하는 사하이야기

사하 역사·생태고우니 양성과정 개설



지난 3월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사하 역사·자연학교 운영을 위한 역사·생태고우니 양성과정이 개설되었다. 역사·생태고우니는 사하의 역사와 생태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지역해설사를 말한다. 생태고우니는 현재 몰운대와 승학산을 중심으로 사하 자연학교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생태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생태고우니들은 자연학교를 시작으로 국가 지질공원 해설사, 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연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 4기를 양성하게 되었다.

역사해설사 양성과정은 다대진성, 다대포 객사, 윤공단 등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시작으로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근현대사적 이야기의 특색에 맞춰 운영하게 된다. 특히, 윤공단은 임진왜란 때 순절한 윤흥신 장군과 군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 진 곳으로 윤흥신 장군의 이야기는

창작 오페라로 공연이 제작 되는 등 새롭게 재조명 되고 있어 주목 할 만한 곳이다. 지역민들에게는 역사를 알리고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애향심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는 사하의 역사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역사고우니는 2018년 시범 운영될 사하 역사학교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이주영 평생교육사는 마을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해설사 활동을 시작으로 다른 일자리로 이어지는 학습형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비쳤다.

사하 역사·생태고우니는 기초 및 심화과정을 수료 후 벤치마킹, 실습,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새로 시작하는 역사학교와 자연학교는 사하구의 역사와 생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16mmstory@hanmail.net

봄맞이 인기 강좌 셀프 인테리어 아름다운 휴식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요즘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주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 중 인테리어 활용 교육 '아름다운 휴식'이 눈에 띈다. 봄을 맞은 사하구민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안겨줄 셀프 인테리어 강좌를 소개한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휴식공간으로서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실용 인테리어 활용 교육을 시작했다. 사하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좌는 지난 3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제 1강 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



를 하는 이유와 함께 각종 인테리어 기법과 셀프 하자 보수 노하우를 강의한다. 공사 없이 넓은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과 가구 리폼 노하우까지 배우고 나면 웬만한 셀프 인테리어는 가능할 것이다.

봄비가 족족한 화요일 저녁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찬 강의실을 찾았다. 수강 신청을 받자마자 바로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강좌다. "저녁 시간이라 지루하지 않게 시연과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페인팅을 기본으로 하자보수와 조명까지 수업하고 나면 웬만한 셀프 인테

리어는 가능할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다는 강사 천현미(여·39세)씨는 바쁘게 시연을 하고 있었다. 하단동에 사는 직장인 김미나(여·56세)씨는 평소 사하구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주간의 유익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그림의 떡이라 여겼다. 마침 야간에 선호하는 강좌가 개설되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제 목부터 호감이 가는 바람에 첫날 바로 신청했어요. 이렇게 만들고 칠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와 공간 제작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야간에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명과 인테리어, 품데코 노하우까지 총망라한 셀프 인테리어 수업으로 봄을 맞은 사하구민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길 기대한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